

yóu 游

游

저장 (浙江) 연수 여행



商務印書館
國際有限公司

出品：浙江省文化和旅游厅

审订：世界汉语教学学会

编写：《汉语世界》杂志社

韩语翻译：朴春燮

韩语审订：李景远(韩)

제작：저장성문화관광청

심사：세계 한어 교학학회

편찬：『한어세계』잡지사

번역：표우춘세이

심사：이경원(한국)



목차

1 산 山 02

- 05 시(詩)를 품은 산—천태산

2 물 水 08

- 11 문학이 숨쉬는 호수: 서호
- 14 물길 따라 내려가다 : 경향대운하
- 16 일렁이는 저장의 물길을 따라

3 인 人 18

- 21 디지털 천국—항저우와 알리바바
- 24 과학기술로 비약하는 물의 고장
- 25 까마귀가 가져온 축복: 이우 국제무역상가
- 27 온 마을 협력: 위춘 (마을)의 생태환경 되살리기

4 문 文 30

- 33 양저 문화: 옥에 새겨진 이야기
- 34 저장의 비단 문화
- 36 서시와 구천: 미녀와 국왕
- 38 사오상: 문학이 숨쉬는 물의 고장

5 낙 乐 40

- 43 저장(浙江)의 대표 요리와 미식가
- 46 룡징(龍井)의 전설
- 49 저장의 전통극—월극(越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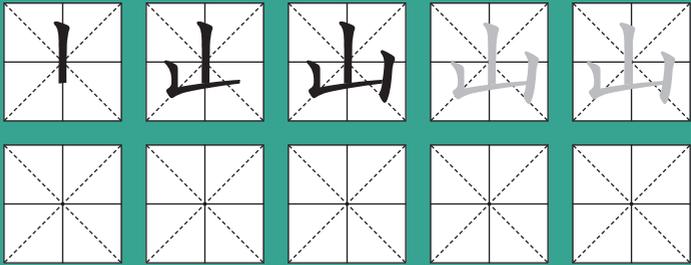


1

山

shān

산



새 단어

普陀山	Pǔtuóshān	보타산
爬山	páshān	등산
山顶	shāndǐng	산꼭대기
假山	jiǎshān	가산
山楂	shānzhā	산사자
山路	shānlù	산길
山泉	shānquán	산속의 샘물
山洞	shāndòng	산굴

대화

A: 휴가 기간에 우리 등산하러 가자!
B: 좋아. 이전부터 천태산이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거기 가보자.

Jiàqī zánmen qù páshān
ba!

假期咱们去爬山吧!

Hǎo a, zǎo jiù tīngshuō
Tiāntáishān hěn měi, jiù qù nàr
ba.

好啊, 早就听说天台山很
美, 就去那儿吧。

A: 너 호텔 문앞의 가산을 봤니?
B: 봤어. 가산의 폭포도 참 볼만하더구나!

Nǐ kàndào jiǔdiàn ménkǒu de
jiǎshān le ma?

你看到酒店门口的假山了
吗?

Wǒ kàndào le. Jiǎshān shang
de pùbù yě hěn yǒu yìsi!

我看到了。假山上的瀑布
也很有意思!

A: 선생님, 공원 입구까지 아직
거리가 얼마 남았어요?
B: 멀지 않아요. 이 산길을 넘어
좌회전하면 바로 보여요.

Shīfu, qǐngwèn dào
gōngyuán ménkǒu hái yǒu
duō yuǎn?

师傅, 请问到公园门口还有
多远?

Bù yuǎn, guò le zhè duàn
shānlù zuǒguǎi jiùnéng
kàndào le.

不远, 过了这段山路左拐
就能看到了。

A: 서호용정차를 어떻게 물에 우
리면 더 마시기 좋니?
B: 산속의 샘물로 우리면 그 맛
이 더 향기롭다고 들어어.

Xīhú Lóngjǐng zěnmē
chōngpào gèng hǎo hē?

西湖龙井怎么冲泡更好喝?

Tīngshuō yòng
shānquánshuǐ pàochá gèng
xiāngtián.

听说用山泉水泡茶更香甜。



성어

开门见山 kāimén-jiànshān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다

어원



갑골문



금문



소전



행서

3,000 여년 전에 가장 일찍 나타난 한자 갑골문에서 산은 상형문자로 그 모양이 3 개의 산봉우리와 흡사했다. 후에는 3 개의 수직 필획으로 간략화 되었다. 중국의 넓은 땅에는 못 산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저장의 보타산은 중국의 4대 불교 명산의 하나이다. 경치가 아름다운 보타산은 여행하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 시(詩)를 품은 산—천태산

중국 고대문학의 황금시대였던 당나라(618-907) 때에 천태산(天臺山)은 도가·불가 그리고 괴이하고 자유분방한 선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시인, 승려, 은자, 예술가와 문인들이 저동(浙東) 산맥에 몰려들어 운무가 감도는 봉우리와 동굴을 유람하는 것은 풍류를 즐기는 문인에게는 중요한 의식이였다. 시인 원진(元稹)의 시에 ‘(문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천태산에 갔던 일만 얘기하네!’ 라는 시구가 있듯이, 그 당시의 시인들은 1,200 여 편의 시를 써서 천태산의 웅장하고 신비로운 모습을 담았다.

오늘날의 여행자들에게 행운인 것은 저장성이 ‘당시(唐詩)로드’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지 시가 문화의 흔적을 되새겨보는 프로젝트이다. ‘시(詩)의 길을 찾아서’라는 이 명제는 그야말로 보물찾기 놀이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산(寒山, 후에 그는 책 케루악과 게리 스나이더를 대표로 하는 미국 ‘비트 제너레이션’의 정신적 우상이 되었음.)과 같은 은자는 천태산의 이곳 저곳에 수백 구의 시구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학자 안주차오(安祖朝)는 천태산을 ‘무궁무진한 시의 보고(寶庫)’라고 말하였다. 역사 선생이었던 그는 늘 학생들을

데리고, 이백이 묘사했던(천태산맥의 북쪽 먼 자락에 자리한) 천모산(天姥山)까지 가서 돌에 새겨진 고대의 시를 직접 감상하게 하였다.

이백은 ‘꿈에 본 천모산에서 이별의 시를 읊네!’라는 시에서 ‘천 개의 암석이 굽이져 길은 찾을 수 없고……동굴 밖의 쪽빛 하늘은 한없이 광활하고……홀연 흰백이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드네!’라고 썼다.

30년간 연구한 결과 현존하는 5만 편에 가까운 당시(唐詩)를 조사한 안주차오는 당시(唐詩) 44편 중 1편 꼴로 천태산을 언급하였다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다. 그는 2018년에 《천태당시총집(天臺唐詩總集)》이라는 책을 펴냈으며,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천태산의 시문화를 조명하여 사람마다 천태산을 동경하게끔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천태산 탐방의 첫 번째 장소는 중국의 주요 불교사찰 중의 하나인 국청사이다. 국청사는 천태산의 고산 협곡의 높은 산비탈에 분포하는 건축군으로, 600여 개의 가옥과 전당 및 정원으로 이루어져 5개의 축을 따라 늘어서 있다. 국청사는 598년에 창건되어 청대(淸代)에 중수되었다.

국청사는 불교의 천태종파가 탄생한 불

교사(佛敎史)의 전설이 어린 곳이다. 수 세기에 걸쳐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구법승(求法僧)들이 이곳에 이르렀다. 그들은 국청사에서 불법을 구하여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7세기의 일본과 11세기의 조선의 새로운 불교 종파인 천태종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다.

국청사의 문화 보물로는 석각, 경서, 서화, 목조, 옥 장식, 불상, 범어로 필사된 두루마리 등이 있다. 석조의 정원을 거닐다 보면 황갈색 두루마기를 입은 수행승들이 이곳을 부지런히 오고 간다. 비록 건립된 지 무려 1,400여년이나 지났지만 이곳은 여전히 활기차고 인기 높은 순례의 명소임을 직감할 수 있다.

국청사의 주방은 시인 한산의 도반(道伴)인 습득(拾得)이 머물던 유서 깊은 거처이다. 한산과 습득은 국청사 부근의

골짜기를 누비며, 엄격한 수행 계율을 무시하고, 대자연 속에서 티없는 궁극의 행복을 찾아 다녔다고 전하고 있다. 후세 화가들의 그림 속에는 남루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가슴을 터놓고 활짝 웃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사찰 부근의 가볼만한 명소로는 또 석량폭포와 한산호가 있다.

오늘날 여행자들은 천태산에서 수 세기 이래의 문학의 괴짜와 유명인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한산이 30여년 동안 언거했다는 동굴을 찾지는 못하였다. 어쩌면 그의 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지도 모르겠다. “한산으로 가는 길을 묻지만, 한산으로 통하는 길은 없다네. ……그대 마음이 나와 같다면 행여나 그 속에서 찾을 수도 있겠네.”



登高망원 (登高望遠, 높은 곳에 올라 먼곳을 바라보다):

저장 5대 명산

莫干山

막간산

해마다 여름철이면 수많은 유명인사와 부자들이 막간산(莫干山)의 울창하고 시원한 계곡으로 피서를 온다. 이곳에는 127km²의 대나무 숲과 200여 채의 유명인사들의 별장이 있다. 모택동(毛澤東)과 장개석(蔣介石)도 이곳에 묵은 적이 있다.

普陀山

보타산

저우산군도(舟山群島)의 보타산(普陀山)은 중국 4대 불교 명산 중의 하나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보제사, 법우사, 혜제사 등 30여 개의 사찰이 있다. 해마다 수백만 신도들이 보타산에 모여 관음보살의 탄신을 경축한다.

江郎山

장량산

명나라의 지리학자 서하객(徐霞客)은 세 차례나 장량산을 찾아 “기묘하며, 험준하고, 신비롭구나!”라는 말로 이곳의 단하지모(丹霞地貌, 노을빛의 지형, 우뚝 솟은 채색 바위산)를 묘사하였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이를 ‘구름 속에서 자라는 마천루’



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2010년에 장량산(江郎山)의 단하지모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天目山

천목산

천목산(天目山)의 이름을 직역하면 ‘하늘의 눈’이라는 뜻인데, 동쪽과 서쪽의 두 봉우리 위의 연못이 마치 사람의 두 눈과 같아서 그 이름을 얻게 되었으며, 이 2개의 연못은 영원히 마르지 않으며 하늘의 빛과 구름 그림자를 되비추고 있다. 천목산은 유네스코의 생태계보호지구로 등재되었는데, 이곳의 천목 특산 유삼나무와 기타 2,000가지 식물은 구름표범과 검은문착을 포함한 50여 종의 동물을

보호해주는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다.

凤阳山

봉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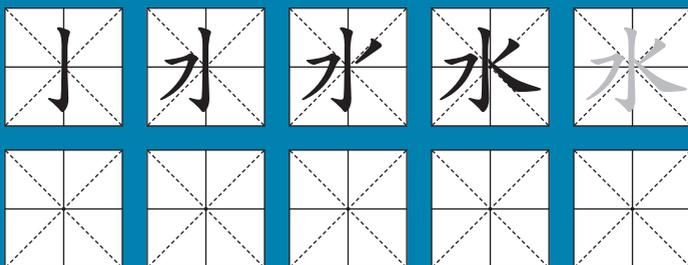
등산 애호가들은 양자강 삼각주의 최고봉이며 해발 1,929m에 달하는 봉양산(鳳陽山)의 황마오젠(黃茅尖)에 올라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난이도가 높지 않고 풍경은 아주 수려하다. 천 년의 고목이 울창한 숲에서부터 등산하기 시작하여 산속의 초원을 지나게 되는데, 봄이면 이곳은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로 온 천지를 물들리게 된다. 정상에서는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으며 황금빛 운해가 뭇 산을 감도는 풍경을 쉬이 목격할 수 있다.

2

水

shuǐ

물



새 단어

水果	shuǐguǒ	과일
热水	rèshuǐ	더운 물
泪水	lèishuǐ	눈물
喝水	hēshuǐ	물을 마시다
水墨画	shuǐmòhuà	수묵화
浇水	jiāoshuǐ	물을 주다
潜水	qiánshuǐ	잠수하다
水晶	shuǐjīng	수정

대화

A: 우리 과일이나 사자.

Zánmen mǎi diǎn shuǐguǒ ba.

咱们买点水果吧。

B: 좋아. 호텔 근처에 마트가 있으니 거기 가보자.

Hǎo a, jiǔdiàn fùjìn yǒu chāoshì, kěyǐ qù kànkan.

好啊, 酒店附近有超市, 可以去看看。

A: 아침, 꽃에 물을 주는 걸 잊었네!

Āiyā, wǒ wàng le gěi huā

jiāoshuǐ le!

哎呀, 我忘了给花浇水了!

B: 괜찮아. 날마다 물을 주지 않아도 돼, 보름에 한 번씩 주면 돼.

Méishì, bù xūyào měitiān jiāoshuǐ, bàn gè yuè jiāo yí cì jiùxíng.

没事, 不需要每天浇水, 半个月浇一次就行。

A: 나 음료수 사러 가려고 하는데 너 뭘 마실래?

Wǒ qù mǎi yǐnliào, nǐ xiǎng hē shénme?

我去买饮料, 你想喝什么?

B: 고마워. 됐어. 난 더운 물 마시면 돼.

Xièxiè, búyòng le. Wǒ hēshuǐ jiù xíng.

谢谢, 不用了。我喝水就行。

A: 너 왜 울어?

Nǐ zěnmē kū le?

你怎么哭了?

B: 이걸 감동의 눈물이야. 백낭자와 허선의 사랑 이야기 넘 감동적이야!

Zhè shì gǎndòng de lèishuǐ, Bái Niángzǐ hé Xǔ Xiān de àiqíng gùshi tài gǎnrén le!

这是感动的泪水, 白娘子和许仙的爱情故事太感人了!



성어

五湖四海 wǔhú-sìhǎi
 방방곡곡

어원

갑골문

금문

소전

행서

갑골문에서 “물”은 하나의 곡선과 그 주위를 에도는 4개의 짧은 필획으로 구성되었다. “물”을 나타내는 필획은 “氵”로 그 모양은 마치 세 방울의 흐르는 물과 비슷하다. 이 글자는 강, 하천, 호수, 바다 등과 같은 많은 한자에 사용되고 있다. 저장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인 황저우 서호는 낭만적이고도 신비로움이 가득한 곳이며 이곳에는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 문학이 숨쉬는 호수 : 서호

수 세기 동안 항저우의 서호(西湖)는 줄곧 시인과 화가, 소설가들의 영감의 원천이었다. 전체 면적이 49 km²에 달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지인 이곳에는 수많은 탐과 사찰, 다리, 섬(자연섬과 인공섬이 있음)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신화와 전설 및 역사의 숨결이 서려있다.

서호의 운명은 수나라(581-618) 때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중국 동부의 여러 갈래의 수로는 대운하와 연결되었으며 항저우와 서호는 대운하의 최남단 종착역이었다.

그러나 정작 서호의 황금시대는 남송(1127—1279)의 고종이 항저우(당시는 ‘임안(臨安)’이라고 불렀음)를 도읍으로 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고종황제는 황성 내부와 그 주변의 건축과 경관의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타고난 예술적 재능의 소유자인 고종황제는 항저우의 가장 웅장한 궁전 건축물을 직접 감독하며 축조하였다. 이 건축물들은 아름답고 독특하여 남송의 건축예술품을 대표하게 되었다.

남송의 수도로서의 린안(임안)은 재능이 넘치는 학자와 작가, 예술가를 끌어들이 호수를 주제로 한 산수화의 요람으로

자리잡았다. 화가와 시인은 호수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선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시기에 ‘서호십경(西湖十景)’의 이름 붙이기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서호의 아름다운 경관은 단순한 관광명소에 그치지 않고 12 세기에 뿌리내린 심미적인 전통의 핵심주제로, 중국문화 가운데 최고의 문학과 예술작품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이 10 개의 경관 중 첫 번째는 ‘소제춘효(蘇提春曉)’로, 호수를 가로 지르는 보행로용의 인공제방을 가리키는데, 11 세기의 시인이자 관리였던 소식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그는 항저우에서 재직하는 기간에 서호의 준설을 지시함으로써, 20 여 만명의 노동자들에게 일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이를 통해 소식은 항저우를 중국과 세계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항저우는 최고수준의 도시화를 이룩함과 아울러 도시 생활과 자연의 융합까지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남송시대의 린안문화는 비록 생명력이 넘쳤지만 1276년 쿠빌라이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항저우의 중국의 위대한



수도로서의 지위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송 왕조가 남긴 건축과 시가, 문화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마르코 폴로는 일찍이 이 정복된 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새로 건국한 원나라는 남송이 서호의 산수를 즐기는데 탐닉하여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였다고 여겨서 서호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우고 팽개친 채 더 이상 돌보지 않았다.

1503년에 이르러서야 명나라(1368—1644)의 양맹영(楊孟瑛)이라는 관리가

서호에 새 생명을 불어넣게 되었다. 그는 대규모 준설작업과 주변 명승지 보수 작업을 시행하였다. 그 이름도 유명한 소제(蘇堤)는 보다 튼튼하고 넓게 확장하면서 버드나무와 복숭아나무도 심었다. 그는 또 나중에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양공제(楊公堤)’로 이름 붙여진 새로운 제방길을 소제와 평행하게 축조하였다. 오늘날 여러 분들은 3.4km에 달하는 이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연도의 호숫가 주변의 여러 경관들을 유람할 수 있을 것이다.



‘서호십경’은 남송의 운명과 함께 사라졌다. 그 후 400년이 지나서야 청나라(1616—1911) 강희제는 서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서예작품으로 발랄한 생기를 불어넣었다. 즉 서호십경 곳곳에 황제가 직접 글씨를 쓴 비각(碑刻)을 남긴 것이다. 그의 손자 건륭제는 또 10개의 명승지마다 각각 시 한 수를 짓기까지 하였다. 오늘날 유람객들은 ‘평호추월(平湖秋月, 잔잔한 호수에 가을 달이 어우러진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서호의 백

제(白堤, 시인 백거이(白居易)의 시에 인용되어 명명된 제방)의 서쪽 끝에 위치함)’·‘뇌봉석조(雷峰夕照, 뇌봉탑(뇌봉탑은 전설에서 백사를 진압하고 봉인한 곳)의 석조)’와 같은 대표적인 명승지를 관람할 수 있다.

현재, 서호는 완벽한 보수를 통해 다시금 번영을 구가하며, 중국의 중요한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로 재부상하였으며,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 물길 따라 내려가다 : 경향대운하

공신교(拱宸橋) 메인 아치를 수호하는 네 공복(蚣蝮)은 중국 신화 속 용의 아들로, 긴장감이 서려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석물의 기능은 경향 대운하를 통해 항저우로 들어오는 배가 통과할 때 다리에 부딪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기능을 고려하면 이런 긴장어린 모습은 그야말로 제격이다. 이 공복 조각상은 수백 년 동안 항저우가 중국에서 무역 거래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로서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꼭 지켜봐 온 산 증인이나 다름없다.

대운하는 한때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베이징에서 저장성까지 근 1,800km 나 이어져서, 1,400 여년 전에 남방과 북방의 교류와 융합에 촉매역할을 하였다. 대운하가 통하는 곳이면 덩달아 경제적 번영과 교류도 빈번해졌으며 항저우는 그런 대운하의 핵심적 중추 도시였다.

대운하는 항저우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만들었다. 서기 605년 전까지만 해도 항저우는 인구 15,000 명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소도시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610년에 경향대운하가 완공되자 항저우는 단박에 국제적 대도시로 급부상하였다. 8세기인 당(唐)나라 중기에 이르렀을 때 항저우에는 이미 3만여 개의 점포가 있었고 운하에 정박한 선박만 해도 수십 km 나 이어졌다.

현재 우린먼 부두에서 출발해 운하의 유람선을 타고 30분 정도 가면 공신교에

도착하는데, 그 연도에 전통적인 건축물과 현대식 고층빌딩이 나란히 함께 서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다.

대운하의 1단계 공사는 기원전 5세기 때 중국 북방에서 뚫기 시작했지만, 운하의 남단 종착지인 항저우는 천 년이 지난 수(隋)나라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개통되었다. 잔인하고 포학(暴虐)하기로 소문난 수양제(隋煬帝)는 수백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불과 4년 만에 2,000km에 달하는 운하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가운데 40%의 노동자가 막중한 노동에 죽어 나갔다고 한다.

1280년대에 베니스에서 온 여행가 마

르코 폴로는 항저우의 대운하를 구경하고는 이렇게 글을 남겼다. “이곳에는 대규모의 운하가 있고, 광장으로 통하는 강변에는 어마어마한 석조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광장마다 1주일에 3일 동안 장이 들어서는데, 4~5만명이 드나들고 그들은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물품을 가져와 교역을 한다.”

유람선의 종점인 공신교는 19세기 때는 주요한 여객선 부두였으며, 당시 청나라 정부는 중국의 현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주변의 옛 건물들은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으며, 흰색으로 칠해진 좁은 골목길에는 전통 수공예의 제작 시연과 체험 및 전시를 하는 리빙전시관(Living Museum)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부채나 우산, 칼, 가위 등 전통 수공예품과 그 아방가르드한 디스플레이가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014년에 대운하가 유네스코 세계유

산으로 선정된 것은 대운하가 중국의 발전에 공헌한 바를 감안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대운하는 저장과 장수, 산동을 잇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대운하를 따라 제대로 유람하고자 한다면 샤오허즈제(小河直街)를 가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이곳은 당송(唐宋) 시대에는 대운하와 여러 수로가 합류하는 물자의 집산지로 교외에 속했지만, 20세기에는 발달된 상업 중심지로 탈바꿈 하였다.

오늘날 샤오허즈제는 여전히 20세기 초반 분위기를 풍기는 ‘원주민’ 가옥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곳에는 대장간과 방앗간이 있고 건물들의 검푸른 강남식 기와가 온 강변을 수놓고 있다. 길가의 아무 카페에 앉아 그 찬란했던 전통 문화를 회상하며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노라면 그 정취가 제법 쓸쓸하다.





■ 일렁이는 저장의 물길을 따라

첸탕강(錢塘江)의 솟구쳐 밀어닥치는 조석해일(潮汐海溢)은 7세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큰 소리를 내고, 수천만 마리 말들이 지평선에서 질주해오는 듯하다.”라고 이를 묘사한다.

첸탕강은 저장성(浙江省)에서 가장 큰 강으로, 절강(浙江) 하류의 항저우부터 항저우만(杭州灣)에 이르는 구간을 가리킨다. 옛 이름은 ‘절강(浙江)’인데 ‘구불구불한 강’이라는 뜻이다. 저장성이 바로 이 강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점점 좁아지는 항저우만의 나팔형 지형에 강력한 조석(潮汐) 현상이 가세하면서 저장의 ‘어머니의 강’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해일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옛날에는 첸탕강의 해일은 사악한 하신(河神, 물의 신)이 일으키는 것으로 믿었다. 이에 9세기경 오월왕(吳越王)인 전류(錢鏐)가 군대를 이끌고 강기슭

으로 달려가 해일을 향해 무려 3천 발의 화살을 쏘서 하신을 격퇴 하였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항저우 서호 호반에 자리한 전류(錢鏐)를 모신 전왕사(錢王祠) 부근에는 이 용감무쌍한 영웅의 대형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언제든지 이 도시를 다시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양 활과 화살을 짊어 움켜쥐고 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요한 푸춘강에 도달하게 된다. 푸춘강을 따라 펼쳐진 수려한 산 경치는 예나 지금이나 그 명성이 자자하다. 14 세기의 화가 황공망(黃公望)이 예술적 영감으로 7m 짜리의 거작인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를 그렸는데, 저장성박물관에는 그 절반을 전시하고 있다.

황공망은 당시 원나라 몽골인들의 통치에 좌절한 채 휘황찬란했던 옛 강토에 대한 그리움을 화폭에 담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았다고 한다.

해변가에서

舟山群島 저우산군도

저우산(舟山)군도는 1,390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과 섬 사이를 카페리가 연결하고 있다. 차오저우(潮州) 사람들이 즐겨 찾는 동지다오(東極島)는 2014년 로 드무비 《後會無期, 다시는 못 만나리라》의 촬영지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조류보호지역인 우즈산(五峙山) 열도 등이 있다. 중국 불교 명산의 하나인 푸튀산(普陀山, 보타산)과 동해 음악제 개최지였던 주자젠다오(朱家尖島)도 바로 이곳에 있다.

嵎山島 성산다오

자칭 중국 최동단의 섬인 성산다오(嵎山島)에는 허우터우완(後頭灣) 마을이 있는데, 주민들이 편한 생활환경을 찾아서 다른 섬으로 줄줄이 이주한 뒤에 자연이 다시 이곳의 주인이 되었다. 성산다오는 저우산 부근의 지세가 험한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성쓰(嵎泗) 열도에 속하며, 이곳에는 외딴 어촌과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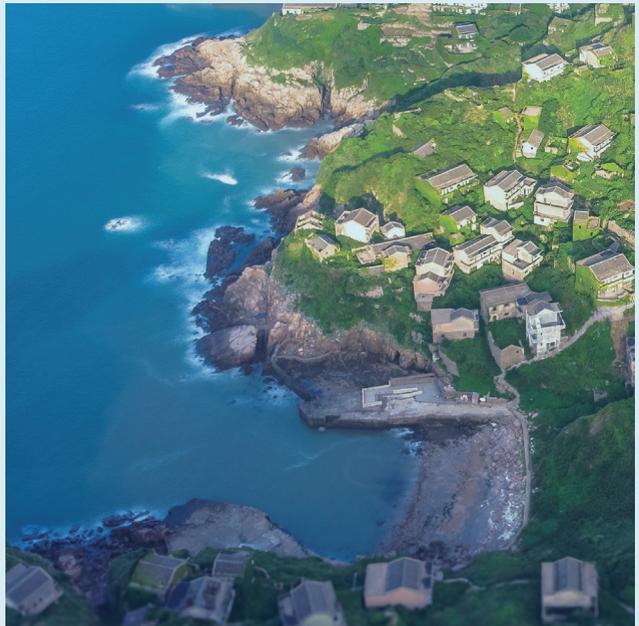
洞頭 紅石灘 동터우 홍스탄

사진작가들은 무리를 지어 원저우 해변의 홍스탄으로 몰려들어 만조 때 해무(海霧)가 들쭉날쭉한 암초 뒤로 새벽 물안개처럼 피어 오르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다. 이런 암초는 미생물로 불그스레하게 물들어 있어서 일출과 일몰 때면 아름답기 그지

없다.

石浦漁港 스푸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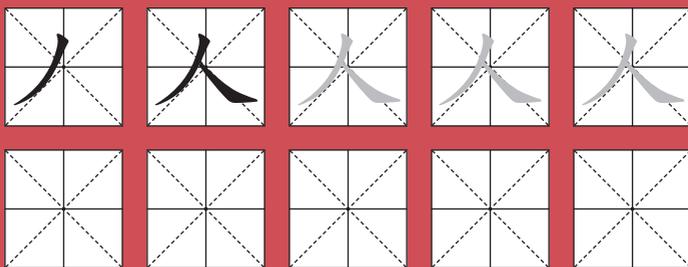
닝보 상산현의 스푸항은 저장성 최대 어항의 하나이다. 매일 밤 장이 서서 신선한 해산물을 현장에서 맛볼 수 있다. 이웃한 600년 역사의 옛 소읍에는 오래된 사원과 성벽, 전통적인 민가가 있다.



3

人

rén
인



새 단어

家人	jiārén	가족
诗人	shīrén	시인
好人	hǎorén	좋은 사람
人才	réncái	인재
迷人	mírén	매혹적이다
人工	réngōng	인공
机器人	jīqìrén	로봇
人生	rénshēng	인생

대화

- A: 이 거리는 정말 인산인해로구나!
나!
- B: 이곳은 항저우에서 가장 번화한 상가야.

Zhè tiáo jiē shàng zhēnshì
rénshān-rénhǎi!

这条街上真是人山人海!

Zhè shì Hángzhōu zuì fánhuá
de shāngyèjiē ma.

这是杭州最繁华的商业街
嘛。

- A: 선생님, 이거 당신의 여권입니까?
까?
- B: 저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Xiānsheng, zhè shì nín de
hùzhào ma?

先生, 这是您的护照吗?

Shì wǒ de, xièxiè nín, nín
zhēnshì ge hǎorén.

是我的, 谢谢您, 您真是个好
人。

- A: 이 웹 사이트의 고객 서비스는
어때요?
- B: 인공 서비스나 로봇 서비스나
다 괜찮아요.

Nàge wǎngzhàn kèfú
zěnmeyàng?

那个网站客服怎么样?

Réngōng kèfú hé jīqìrén kèfú
dōu búcuò.

人工客服和机器人客服都
不错。

- A: 알리바바회사가 인재를 모집하
고 있다네요.
- B: 저도 한 번 가서 면접보고 싶
네요.

Aǐbābā gōngsī zhèngzài
zhāopìn réncai.

阿里巴巴公司正在招聘
人才。

Wǒ yě xiǎng qù shì yì shì.

我也想去试一试。



성어

人山人海 rénshān-rénhǎi
인산인해

어원

人

갑골문

人

금문

人

소전

人

행서

3,000 여년 전의 갑골문에서 이 글자는 마치 측면으로 직립한 사람의 모양과 같으며, 후에는 도형화에서 필획화로 변화되어 오늘날의 모양으로 발전되어왔다.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저장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서예가 조맹부, 작가 노신, 과학자 투유유, 당대 기업가 마윈과 같은 여러 업계의 선두주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었다.

■ 디지털 천국—항저우와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업계의 거두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馬云, Jack Ma)이 다른 도시에서 태어났다면 자수성가한 스토리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입지전적인 기업가 마윈은 “항저우는 알리바바의 축복의 땅이며, 항저우가 없었다면 알리바바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항저우(杭州)는 저장(浙江)성 성정부 소재지로, 마윈의 거대한 기술 혁신인 알리바바의 대명사가 될 정도다. 중국 디지털 산업의 기술 중심지이자 이 같은 혁신의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됐다. 항저우에는 인터넷과 게임회사인 넷이즈(NetEase), 세계 최대 CCTV 공급업체인 하이크비전(HIKVISION)을 비롯해 현재 많은 과학 기술 회사가 알리바바를 뒤따르고 있다.

항저우가 지속적으로 번영(2019년에, 항저우의 경제성장률은 6.8%)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본사를 항저우에 두고 있는 알리바바 덕분이다.

알리바바의 본사는 항저우 시시습지(西溪濕地)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약 2만 2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마윈 전자상거래 제국의 중추신경계에 해당한다.

마윈의 입지전적인 스토리는 저장성 동향인들에게 창업의 자극제가 되고 있다.

마윈은 1964년 9월 10일에 태어났고 부모는 만담과 노래와 악기를 타는 중국

전통 설창(說唱)계의 예술인이다. 그는 13살 때부터 항저우에 온 외국 관광객에게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였다. 그 후 9년 동안은 항상 이끼가 가득 낀 작은 길을 따라 항저우호텔(지금의 상그릴라 호텔)로 가서 영어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관광객들을 데리고 전설과 역사가 가득한 항저우의 구석구석을 안내했다.

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한 후 마윈은 30여 가지 직업을 찾아 다녔으나 번번이 문전 박대를 당하였다. 그 가운데는 항저우에서 최초로 개업한 KFC도 포함되어 있다.

1999년에, 그는 17명의 친구들과 함께 항저우의 자기 아파트에서 알리바바를 창립하였다. 당시에는 아무도 오늘 같은 날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지만 그들은 새로운 항저우의 전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2014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을 맞이하여 증권계의 신흥 슈퍼스타로 등장하기 직전, 알리바바는 이미 20여개 나라에서 1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글로벌 온라인 거래액도 1조 위안(RMB)을 초과하고 있었다.

그해 9월, 정식으로 상장된 후 시가총액은 2383억 달러로 미국 주식 역사상 최대의 기업공개(IPO) 기록을 돌파하며, 세계 4대 과학기술 기업으로 성큼 올라섰다.



알리바바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급성장 기업으로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현재 오락, 영화, 체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투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2018년, 항저우시는 디지털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자 5개년 계획을 선포하였다. 현재 항저우의 GDP 가운데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1/4 이나 된다.

2019년, 알리바바의 수입은 7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현재 비록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사업 영역을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핀테크 (Fin Tech: 금융과 정보기술) 등으로 확장하면서 회사의 미래는 여전히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2020년 회장직을 사임하고 자선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마윈은 알리바바가 2101년까지 번창하여 그가 창업한 일생 일대의 사업이 3세기에 걸쳐 지속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마윈과 그가 세운 회사도 항저우에 뿌리를 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마윈의 말대로 이 도시가 알리바바를 만든 것이다.

알리 그룹엔 뭐든지 다 있다

1999년에 설립된 이래 알리바바는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회사 중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처음에는 온라인 시장에 국한되었지만 현재의 알리바바와 협력 파트너는 중국의 어디든 존재하는 현대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모바일결제, 택시(호출서비스), 디지털 화폐, 공유자전거, AI 연구 등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支付宝:

●알리페이: 2004년에 출시된 모바일 결제시스템으로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QR 코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2017년에 출시된 안면 인식 결제 플랫폼은 2018년에 이르러 8억 7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코드’ 시스템도 개발되었다.

●淘宝:

●타오바오: 타오바오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중국에서는 거의 모든 휴대전화에 타오바오 앱을 탑재하고 있다. 타오바오는 C2C(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나 쇼핑물을 개설할 수 있다. 매년 11월 11일

은 ‘싱글 쇼핑 페스티벌’로 2019년에는 2,684억 위안의 매출을 올렸다.

●盒马鲜生:

●허마셴성: 허마셴성(盒马鲜生, Freshippo)은 ‘허마’라고 약칭하며 알리바바의 ‘新零售(신유통)’ 슈퍼마켓 브랜드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쇼핑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 쇼핑’은 고객이 인터넷이나 쇼핑물에서 식료품이나 잡화를 주문할 수 있고, 30분 안에 배송이 가능하다. 육류나 해산물 등의 식료품을 사면 가게에서 조리해 먹을 수도 있다.





■ 과학기술로 비약하는 물의 고장

저장성 행정부 소재지인 항저우(杭州)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우전(烏鎮)이라는 오래된 ‘수향(水郷, 물의 고장)’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돌다리, 명대(明代)의 건축물과 구불구불한 수로가 어우러져 있어 ‘동양의 베니스’란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다. 관광객들은 종횡으로 얽혀 있는 물길을 따라 배를 타고 편하게 유람할 수 있다.

그러나 우전은 유구한 역사 도시임에도 사람들에게는 아방가르드 예술과 과학 기술 창업의 중심지라는 더욱 모던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2014년부터 우전은 세계 인터넷 대회를 주최하고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과학기술 회사의 거두들을 맞이하였다. 2017년에는 디지털 세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

한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우전은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 타운’을 만들어 소방부터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였다. 2019년 인터넷 대회 기간에 내빈들은 5G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곳곳을 누빌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무인버스들은 시 전역 110km² 지역에 운행될 예정이다.

우전은 중국 역사에서도 줄곧 중요한 문화 중심지였다. 현재 많은 아트갤러리는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무신미술관의 경우 우전에서 태어난 작가 겸 화가인 무신의 작품이 주로 전시되고 있다. 우전은 일년에 한번씩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예술 축제인 우전연극제를 개최하기도 한다. 그 중에는 야외 카니발 공연 행사도 포함되어 있다.

■ 까마귀가 가져온 축복: 이우 국제무역상가

기원전 1세기 저장성이 아직 변방이었을 때, 연우(顏鳥)라는 한 젊은이와 그의 부친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우는 길가에서 다친 까마귀 한 마리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었다.

몇 년 후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연우(顏鳥)는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직접 무덤을 파기로 결정하였다. 3일 밤낮으로 무덤을 파게 되자 몸은 녹초가 되고 마음은 비통하기 그지없었다. 이때 갑자기 까마귀 떼가 나타나 연우를 도와 부리로 무덤을 파주었다. 효자 연우와 의로운 까마귀의 이야기가 천하에 전해지면서 이 곳은

‘우상(烏傷, (무덤을 파느라 생긴) 까마귀 부리의 상처)’ 또는 ‘우효(烏孝, 효성스런 까마귀)’라 불리게 되었고 후에 ‘이우(義鳥, 의로운 까마귀)’라고 바뀌었다.

까마귀 떼가 비록 길조(吉兆)는 아니었을지라도 행운의 여신은 언제나 이우를 지켜줬다. 이우는 진화(金華)시에 속한 현(縣)급 도시로, 저장성 중부의 산간 지대에 위치하여 농경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무역이 주업이었다. 이우의 본격적인 도약은 1982년부터 시작되었다. 개혁 개방 이후에 18세기부터 개업했던 도매시장이 재개장되면서 ‘이우 국제 상업무역타운’을 랜드마크로 하는 세계 최대의 공산품 시장으로 재탄생하



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이우는 경공업제조업과 소비재의 지방 거점의 무역 중심지이자 수많은 국제 비즈니스 투어 인사들의 목적지가 되었다. 3 km²에 달하는 이우무역타운은 하루에 아시아·중동·유럽과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온 20 만명이나 되는 수입업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어떤 손님들은 물건만 구입해서 옷과 액세서리로 가득 찬 트렁크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져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영주권을 가진 1만 3천 명의 외국 주민들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비즈니스 무역, 비즈니스 컨설턴트, 국제학교 교사와 중소기업주 등에 종사하기도 한다.

세계 206 개 나라와 지역의 소비재 공급자로 자리매김한 이 작은 도시 이우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산타마울’이라고 불리는 만큼 세계 크리스마스 장식품의 약 60%가 이 도시 주변 600 개 공장과 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중 수많은 공장과 작업장은 1년

내내 빨간색 스팅글이 널려져 있다. 전 세계 상품 가격을 반영하는 ‘이우지수’도 이미 하나의 정치 풍향계가 되었다. 현지 기업주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를 지지하는 선거 관련 제품들이 대량 수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우는 비즈니스 투어의 주요 목적지로, 저장성의 다른 이웃 도시처럼 여행지로 유명하지 않지만 방문객들은 국제적인 분위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곳에는 다양한 이국적인 음식과 멋진 밤 문화가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언어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매년 10여 차례나 국제 무역 전시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처우저우 베이루(稠州北路)의 야시장에서 장사꾼들이 길가의 카페 앞에서 파이프 물담배를 피우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광경은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유일한 풍경이기도 하다.





■ 온 마을 협력: 위춘 (마을) 의 생태환경 되살리기

판춘린 (潘春林)은 더 이상 흰 셔츠를 입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20세기 90년대에, 그는 위춘 (余村)의 한 광산의 하역부였다. 인민망 (人民網)에 실린 한편의 기사에서 그는 “아침에 흰 셔츠를 입고 나와 저녁에 귀가하면 눈만 하예요. 엄마는 연한 색 셔츠 사지 마, 이젠 빨래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죠.”라면서 당시 상황을 회상하였다.

1990년대에 위춘 사람들은 현에서 가장 잘 살았다. 그들은 채석장 3곳, 시멘트 공장 3곳, 석회 가마 1곳, 제지공장 1곳, 화학공장 1곳을 세웠으며 하루에 7, 80대의 트랙터가 분주히 오가며 작업을 했다. 그러나 마을 거리와 하천은 연기, 먼지와 오수로 가득 찼고 마을사람들은 제각기 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2005년 마을 위원회에서는 비록 당장엔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이런 기업들을 하나씩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조치는 후에 ‘생태계 관리의 기적’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위춘의 변화는 그 당시 저장성 당서기였던 시진핑의 주목을 끌었고, 그해에 이 마을을 시찰하면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는 “녹수청산 (綠水靑山) 이야 말로 금산 (金山) 이요 은산 (銀山) 이다!”라는 친환경 구호를 제시하였다.

위춘은 더 이상 광산물을 팔지 않았고, 울창한 자연경관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었다. 관광객들은 한 줄기의 강이 작은 마을을 가로지르고, 푸른 언덕이 마을의 뒤편에 우뚝 솟아있는 경탄을 금치 못하는 파노라마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관광객들은 농가에 머물면서 시골의 오래된 은행나무와 드넓은 해바라기 밭을 감상할 수 있다. 리안(李安)이 오스카상을 수상한 무협 영화 《와호장룡(臥虎藏龍)》에서 위춘 인근의 대나무 숲은 짜릿한 액션 장면의 배경이 되었다. 위춘은 2012년에 유엔 해비타트상(UN-Habitat Scroll of Honor Award)을 받기도 했다. 2020년에는 중국의 ‘아름다운 레저 마을’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산과 물을 끼고 있는 위춘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탁월한 성과이다. 15년 동안 환경 보호에 주력해온 마을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판춘린(潘春林)은 농담조로 “이젠 입고 싶은 옷 다 입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당신의 왕림을 기대하고 있는 저장성의 네 마을

江山市和睦村 장산시 화목촌

화목촌은 4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마을의 자갈길 양쪽에는 많은 도자기 공방이 도열해 인근 있으며, 지금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통 도예의 보금자리이다. 작업장과 도자기 가마는 현지에서 출토된 옛 토기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든 것으로, 관람



은 물론 직접 도자기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마을에는 명대(明代)의 석패방(石牌坊), 청대(清代)와 20세기 초의 전통 민가가 잘 보존되어 있다.

衢州市开化縣金星村
취저우시 카이화현의 금성촌
 ‘황금의 별’이라는 의미의 마을 이름은 천 년이나 된 마을의 은행나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가득하며, 500m나 되는 가로수 길가에는 붉은 초롱이 걸려 있다. 자옥한 안개 속에 죽 이어진 산과 그 사이

를 흐르는 마진시(馬金溪, 마금천)는 마치 한 폭의 수려한 산수화를 보는 듯하다.

金華市武義縣俞源村
진화시 우이현의 유원촌
 ‘태극성상촌’으로 불리는 이 마을은 명나라 개국 공신 유백은이 설계한 것으로, 마을의 건물과 경관은 모두 고대의 성상도(星象圖) 중의 별자리인 ‘황도 12 궁과 28 성수’에 따라 배열된 것이다. 민가와 교량은 공들여 고안된 것이고, 보존 상태도 좋으며, 벽돌의 조각도 무척 정교하고

아름답다.

溫嶺市石塘鎮小箬村
원링시 스탕진 샤오뤄촌
 2017년, 현지 정부는 이 작은 어촌의 담장을 파란색, 핑크색, 오렌지색, 노란색으로 칠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때부터 사진작가들과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이 ‘무지개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곳은 ‘중국의 산토리니 섬’으로도 불리는데, 멀리 바다가 내다보이는 예스럽고 운치 가득한 조약돌 길가에는 카페와 밀크 티 가게가 빼곡히 들어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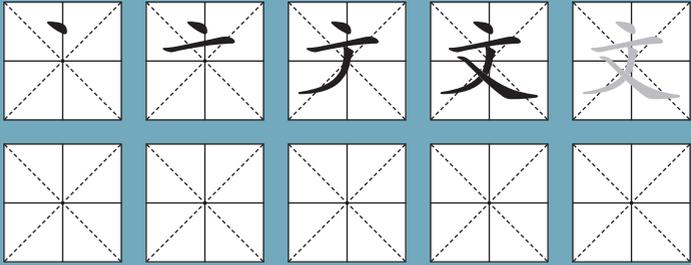


4

文

wén

문



새 단어

文化	wénhuà	문화
文件	wénjiàn	서류
中文	Zhōngwén	중문
文物	wénwù	문화재
文房四宝	wénfáng sì bǎo	문방사보
文静	wénjìng	부드럽다
论文	lùnwén	논문
文章	wénzhāng	글

대화

A: 너 뭐가 그리 바빠?
Nǐ zài máng shénme?
你在忙什么?

B: 동료가 나에게 보낸 서류를 처리중이야.

Wǒ zài chǔlǐ tóngshì fāgěi wǒ de wénjiàn.

我在处理同事发给我的文件。

A: 여행하기 전에 현지의 풍토인정을 우선 알아두어야 해.

Qù lǚyóu zhīqián, yào xiān liǎojiě fēngtǔ rénqíng.

去旅游之前, 要先了解风土人情。

B: 그래. 나도 인터넷에서 관련 글을 찾아봐야겠다.

Hǎode, wǒ qù wǎngshàng zhǎo yì zhǎo xiāngguān de wénzhāng.

好的, 我去网上找一找相关的文章。

A: 너 중국어를 잘하구나!
Nǐ de Zhōngwén zhēn hǎo!
你的中文真好!

B: 감사해. 나 HSK 6 급을 금방 통과했어.

Xièxie, wǒ gāng tōngguò le HSK liù jí.

谢谢, 我刚通过了HSK六级。

A: 우리 할아버지는 문방사보를 좋아해.

Wǒ yéye xǐhuan shōucáng wénfáng sì bǎo.

我爷爷喜欢收藏文房四宝。

B: 그래? 그럼 너 할아버지께 저장성 후저우의 붓을 선물로 사들려.

Zhēnde ma? Nǐ kěyǐ gěi yéye mǎi yì zhī húbǐ dàngzuò lǐwù.

真的吗? 你可以给爷爷买一只湖笔当作礼物。



성어

温文尔雅 wēnwén-éryǎ
태도가 온화하고 거동이 우아하다

어원



갑골문



금문



소전



행서

갑골문에서 “문” 자는 마치 서있는 사람의 모양과 같다. 윗부분은 머리고 머리 아래는 좌우 양측으로 뻗어나간 두팔이며 그 아래는 두 다리이고 흉부에는 도안이 그려져 있다. 후에는 가슴 앞의 꽃 무늬 도안을 생략하여 점차 지금의 모양으로 변하면서 그 의미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저장에서 고대 중국의 농업, 건축, 방직, 예술 등을 이해할 수 있다.

■ 양저 (良渚) 문화: 옥에 새겨진 이야기

중국의 5천년 역사에 관한 논의는 비록 모든 고대사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답은 없지만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재 이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강력한 고고학적 근거가 바로 항저우 서북부의 양저(良渚)에서 발견되었다.

5300—4300년 전 신석기시대에 존재 하였던 양저 문화는 이집트 파라오와 동일 시기에 장강 하류 지역을 지배하였다. 양저 고성(古城) 유적지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으로 양저 문화의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다. 고성 유적지에서는 궁궐의 터와 제단, 수리 시설과 옥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 고도로 복잡한 사회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주요 문화재는 고성 유적지와 인접한 양저신도시에 있는 양저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런 문화재에는 일상용 토기에서부터 옥으로 만든 제기용품까지 다양하다. 또한 수많은 옥기에서는 독특한 표지가 발견되었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묘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은 그 표지가 가면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神)을 의미하거나 맹수를 탄 우두머리의 모습이라고 한다. 진상이 무엇

이든 간에 이 표지가 최고 지도자가 쓰는 물건에만 나타난다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양저 문화가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대표적인 문화, 즉 옥기를 사회적 지위의 중요한 상징물로 삼는 것은 중국 역사상 계속 존재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옥기는 여전히 진귀한 물건이다.





■ 저장의 비단 문화

항저우역 출구에 ‘반은 서호를 보러 온 것ियो, 나머지 반은 비단을 사러 온 것이다.’라는 광고 문구가 하나 붙어있다.

몇 세기 동안 항저우뿐만 아니라 사오싱과 후저우 같은 저장성의 다른 도시들도 비단 생산의 주요 중심지였으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전통 유산을 뽐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도시들의 모든 거리와 골목마다 비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항저우의 중국비단성(中國絲綢城, 중국비단타운)이나 중국비단박물관을 참관하게 되면 비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저장성의 건축물 역사는 4200 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후저우청(湖州城) 남쪽의 첸산양(錢山漾) 유적지에서

출토된 비단 조각이이를 증명해 준다. 춘추시대(기원전 770—476년)에 지금의 사오싱을 거점으로 한 월나라에서는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키우는 것을 국가발전정책으로 삼았다. 일설에 따르면 월나라의 이름난 미녀인 서시(西施)는 마을 부근의 강가에서 비단 빨래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고 전해지는데 이 마을은 지금의 사오싱 주지현(諸暨縣)에 위치하고 있다.

당나라(618—907년) 때에 수많은 종류의 저장성 비단이 조정에 진상되었다. ‘항저우 비단은 천하제일이다!’라는 속어를 통해 그 당시 항저우 비단이 최고의 대접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단을 사려면 우선 비단의 종류가 크게 14 가지라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그



중 흔히 볼 수 있는 견직물은 ‘縐(명주 - 실크 silk, 감이 하늘하늘한 비단)’인데 얇고 부드러워 주로 치마나 여성용 셔츠 또는 잠옷을 만드는 데 쓰이고, ‘緞(공단 - 새틴 satin, 감이 두꺼운 비단)’은 비교적 두꺼워 일반적으로 자수로 장식해 추동복 치파오(旗袍)를 만드는 데 쓰인다.

항저우에서 가장 유명한 견직물은 누에실로 짠 ‘항뤄(杭羅)’인데, 직조 방법과 과정이 정교하고 복잡하다. 이 원단은 가볍고 통풍이 뛰어나 하복용 치파오를 만드는 데 제격이다.

항뤄의 역사는 적어도 춘추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에 중국의 전통 잠사 직조 기술은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러한 전통문화유산을 집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전통적인 직조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푸싱비단공장이 생산하는 푸싱항뤄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실크 날염 역시 수천 년 동안 실크 제

품 생산의 또 다른 중요한 분야이다. 실크 날염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현지 고급 브랜드인 완쓰리(万事利)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최신 기술과 디자인을 날염에 응용하고 있다.

복식이 아닌 장식용 견직물을 원한다면 항저우의 브로케이드(brocade, 채색의 그림이나 도안을 넣어 짠 견직물)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채색 도안 견직물을 두진성즈진(都錦生織錦)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애국자이자 업계의 태두인 두진성(都錦生)의 이름을 넣어서 이 수공예를 지칭하게 된 것이다

지난 세기 20,30 연대에 항저우 견직물계에서 크게 활약을 펼쳤던 그는 ‘오색 풍경 직물화’를 발명하였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서호(西湖) 서편에 있는 마오자부(茅家埠)의 두진성의 옛집을 둘러보고 또 ‘채색도안견직물 테마박물관’에서 그의 생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 서시와 구천:
미녀와 국왕

중국에서는 여인을 서시(西施)에 비유하는 것이 외모에 대한 가장 큰 칭찬으로 간주된다. 중국 고대 ‘4대 미인’ 중의 하나인 서시는 오늘날 저장성에 실존했던 여인을 모델로 한 것으로, 뛰어난 미모와 불행한 사랑으로 널리 회자되는 비극의 여주인공이자 미모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다.

시아광(施夷光, 서시의 본명)은 춘추말기(기원전 770—476년)에 월나라의 저라 촌(苧蘿村, 지금의 주지현(諸暨縣))에서 태어났다. ‘서시’ 또는 ‘서자(西子)’라는 이름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녀가 사는 곳이 마을에서 가장 서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매력은 역사상 수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칭송이 자자하다. 그녀가 냇가에서 비단을 빨래하는 아름다운 용모로 인해 ‘물고기도 부끄러워 물밑으로 숨었다(沉魚)’고 한다. 이후 서시의 여신급 미모와 ‘날아가는 기러기도 반해서 떨어졌다(落雁)’는 왕소군(王昭君)의 아름다움을 결합하여 전설급 미모를 뜻하는 ‘침어낙안(沉魚落雁)’이라는 성어가 탄생되었다.

사람들이 서시를 기억하는 까닭은 그녀가 월(越)나라의 철천지원수인 오(吳)나라와의 수십 년간 지속된 패권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기원전 494년, 월왕 구천(句踐)은 오왕 부차(夫差)에게 완패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린 처지였으나, 뇌물을 먹은 오나라 대신의 측면 지원하에 오나라의 신하가 된다

는 조건으로 간신히 강화를 하고 오나라로 끌려갔다. 3년이 지난 뒤에 부차의 신임을 얻은 구천은 비로소 월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구천은 복수를 하기 위해 젊은 여자를 뽑아 음악과 춤을 훈련시켜 부차에게 보내 그를 완전히 미혹의 수렁으로 빠뜨릴 작정이었다.

여기에 동원된 여인이 바로 서시이다. 부차는 서시의 매력에 폭 빠져 정무를 게을리하고 서시를 위해 궁전을 짓고 기타 향락을 즐기는데 돈을 쏟아 부었다. 드디어 미인계가 효력을 보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 구천은 인재를 모집하여 나라를 재건하였다. 그는 벗짚 더미에서 자면서 아침마다 방안에 매달린 싼 쓸개를 맛보며 지난날 겪었던 고통스러운 치욕을 일깨웠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치욕을 참고 분발하라는 뜻의 고사성어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유래이다. 기원전 473년에 구천은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춘추시대의 마지막 패자가 되었다.

하지만 오나라가 망한 뒤 서시의 삶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애인인 월나라 대신 범려(范蠡)와 행복한 은둔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서시가 월나라 사람 또는 월왕 구천에 의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전설도 있다. 월나라 사람 역시 서시의 미모로 인해 오나라처럼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저어한 것이다.

■ 사오싱 (紹興) : 문학이 숨쉬는 물의 고장

기원전 353 년의 햇빛이 눈부시고 실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어느 늦은 봄날에 40 여 명의 시인, 학자, 예술가들이 사오싱(紹興) 서남쪽 교외의 산중에 자리 잡은 난정(蘭亭)에 모였다. 그들은 시냇가에 앉은 채 술잔을 물에 띄워서 술잔이 멈추는 곳에 앉은 사람이 이를 들이키고 시 한 수를 짓는 술내기 놀이를 즐겼다.

이날 총 37 편의 시가 탄생하였으나 정작 이 모임이 중국문학사에서 불후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오히려 그 시집의 서문(序文) 때문이었다. 최고의 서예가 왕희지(王羲之)는 죽석에서 324 자의 글로 연회의 광경을 묘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철학을 담아서 《난정집서(蘭亭集序)》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작품은 붓으로 긋거나 고친 글자가 몇 자 들어 있어 완전무결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 필법은 자연스럽고 유려(流麗)하였다. 그의 걸출한 서예 솜씨에다 즉흥적인 영감이 어우러져서 완성된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독보적인 이 작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서(行書)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오늘날 유람객들은 란팅(蘭亭) 풍경 지구에 가서 당시의 성대한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란팅지구는 왕희지가 모임을 가졌던 옛터에 위치하며 운취가 뛰어난 정원으로 그 주변에는 무성한 대나무 숲이 에워싸고 있고 안쪽에는 서예박물관

관과 정자, 연못이 하나씩 있다.

사오싱고성구(紹興古城區)에는 골목길, 하천, 다리, 회색 기와와 흰 벽으로 된 건물들이 도처에 깔려 있고, 또 비페이농(筆飛弄), 티산교(提扇橋)와 같이 주로 왕희지와 관련된 명소도 관람할 수가 있다.

사오싱은 2,500여년의 역사가 서려있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다. 오랫동안 줄곧 문화적 중심지로서 문인과 학자, 사회활동가들이 무수히 배출되었다. 명나라 학자인 원광도의 말을



빌리자면 ‘사오싱에는 유명인사가 붕어 보다 흔하다.’ 라고 하였다.

예리한 필치의 루쉰(魯迅)은 20 세기의 위대한 작가이자 중국의 “민족의 혼”으로 칭송되는데 바로 아주 매력적인 고장인 사오싱의 농촌에서 태어났다. 그는 널리 알려진 작품인 《사희(社戲)》에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을 그려넣기도 하였다. 관광객들은 루쉰과 그 조부의 옛집도 둘러볼 수가 있고, 그의 어린 시절의 화원, 단편소설에서 언급했던 한형술집(咸亨酒店), 그리고 루쉰박물관 등등의 명소를 참관할 수가 있다. 여권 신장의 선구자이자 시인인 치우진(秋瑾)과 교육가 차위엔페이(蔡元培)의 옛집도 사오싱에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이러한 선각자들의 생애와 국가의 혁명사를 들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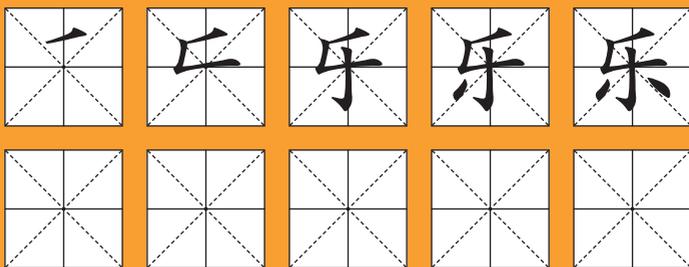
낭만주의자들에게 사오싱은 잃어버린 ‘강남’ (즉 양자강의 남쪽)을 대표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강남은 중국의 시가 속에 존재하는 상상의 세계로, 그야말로 살구꽃, 봄비, 돌다리, 수로와 서로 얽혀있는 세계이다.

오래된 돌다리, 오봉선(烏篷船: 대쪽으로 만들어 검은색을 칠한 뒤편이 있는 작은 배), 향긋한 황주(黃酒)가 있는 사오싱은 강남에 대한 모든 상상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5 乐

yuè / lè
낙



새 단어

音乐	yīnyuè	음악
民乐	mínyuè	민속 음악
乐曲	yuèqǔ	악곡
乐器	yuèqì	악기
欢乐	huānlè	즐겁다
乐趣	lèqù	재미있다
乐观	lèguān	낙관
娱乐	yúlè	오락



대화

A: 넌 어떤 음악을 좋아하니?
Nǐ xǐhuan nǎzhǒng lèixíng de
yīnyuè?
你喜欢哪种类型的音乐?

B: 난 민속 음악과 고전 음악을
좋아해.
Wǒ xǐhuan mínyuè hé gǔdiǎn
yīnyuè.
我喜欢民乐和古典音乐。

A: 비가 오는데 호텔로 돌아가지 못
하면 어떡하지?
Xiàyǔ le, zánmen huí bù liǎo
bīnguǎn zěnmě bàn?
下雨了, 咱们回不了宾馆怎
么办?

B: 낙관적으로 생각해. 좀 있다가
비가 멎을 지도 모르니까.
Lèguān yì diǎn, shuō bú dīng
yíhuìr yǔ jiù tíng le ne!
乐观一点, 说不定一会儿雨
就停了呢!

A: 너 지금 집에 가고 싶니?
Nǐ xiànzài hái xiǎng huíjiā ma?
你现在还想回家吗?

B: 나 넘 즐거워서 고향에 돌아가
는 것을 잊었어.
Wǒ yǐjīng lèbùsīshǔ le.
我已经乐不思蜀了。

A: 우리 요즘 온종일 먹고 놀기만
해서 운동해야지 않겠어?
Zánmen zuìjìn zhěngtiān chīhē
wánlè, shì bú shì gāi yùndòng
le?
咱们最近整天吃喝玩乐, 是
不是该运动了?

B: 호텔에 헬스장이 있으니 가서
달리기나 하자.
Jiǔdiàn yǒu jiànshēnfáng, qù
pǎobù ba!
酒店有健身房, 去跑步吧!



새 단어

乐不思蜀 lèbùsīshǔ
안락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잊다

어원

- 
 갑골문
- 
 금문
- 
 소전
- 
 행서

갑골문에서 이 글자는 상형문자 겸 회의자로서 아래는 현악 자체의 나무 구조이고 위는 건사로 이루어진 줄이며, 그 본래의 뜻은 일종 현악기임을 나타내고 있다. 음악으로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한다고 하여 후에는 “낙(yuè)”자를 즐겁고 유쾌하다는 “낙(ìè)”자로 음성으로 변하게 하였다. 삶이란 순조로울 수가 없으며 좌절을 입었을 때에는 음악을 듣거나 여행하면서 긴장을 푸는게 좋다. 저장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이곳에서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 저장 (浙江) 의 대표 요리와 미식가

만약 당신이 중국의 다른 지역의 특 쓰 는 매운 요리에 길들여져 있다면 저장 요리를 한번 맛보기 바란다. 아마도 전에 없는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장 요리는 중국의 전통 8대 요리 중 하나로 식자재의 품질과 신선도를 중시하고, 음식의 천연적인 맛과 식감을 살려 조리한다.

저장은 예로부터 ‘어미지향(魚米之鄉, 생선과 쌀의 고장)’이라는 미칭을 가지고 있다. 비옥한 충적평야와 푸른 언덕, 수 천리에 이르는 해안선이 풍부한 생물의 다양성을 만들어 냈다. 천연 허브와 가축, 민물 어류와 해산물은 모두 저장 요리에서 중요한 식자재이다.

저장 요리는 또 몇 개의 지역 요리로 나눌 수 있는데, 닝보(寧波) 요리는 해산물 요리로 유명하고, 사오싱(紹興) 요리는 향긋한 사오싱 미주로 맛을 내고, 윈저우(溫州) 요리는 신선한 해산물과 섬세한 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성정부 소재지인 항저우 지역의 항빵차이(杭幫菜, 항저우 요리)는 맛이 뛰어난 요리로 중국 문화사에도 깊은 자취를 남기고 있다.

12세기부터 시작하여 창장(長江) 삼각주 지역은 저명한 유학자와 황친 귀족들이 모여들면서 중국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고상한 품격의 음식 맛도 가지고 내려왔다.

소식(蘇軾), 이어(李漁), 임홍(林洪), 원매(袁枚) 등 학자들은 중국 최초의 음식 평론가가 되었으며, 그들은 이곳에서

저장 요리를 감상하고 음미하면서 그 요리의 천연적인 맛과 식감을 세세히 연구했으며, 절제된 조미법과 자연적인 맛을 내는 방식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심지어는 비인간적인 양식 방식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蘇東坡和東坡肉

소동파와 동파육

소식은 11세기 때에 유명한 시인으로, 항저우 지사(刺史)를 역임하였고 ‘동파거사(東坡居士)’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동파육(東坡肉)’의 발명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요리는 약한 불로 돼지 삼겹살을 천천히 삶은 뒤에 간장과 설탕, 소흥주로 맛을 낸다. 미식가인 소동파는 ‘약한 불과 적은 물로 오랫동안 푹 삶아야 제대로 된 맛이 난다네.’라고 돼지고기 요리에 대한 시를 한 편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동파는 나중에 투옥되





는 화를 입은 후부터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小心那个平庸的厨师
평범한 요리사를 경계하라**

원매(袁枚)의 《수원식단(隨園食單)》은 아마도 고대 식보(食譜) 중에서 가장 널리 읽힌 요리책이라고 할 수 있다. 원매는 미식의 최대의 적을 이야기할 때 아주 직설적으로 “미식의 최대의 적은 바로 평범한 요리사이다” 라고 말하였다.

원매는 《수원식단》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모든 음식마 다 그 자체의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른 맛을 뒤섞어서는 안 된다. 나는 평범한 요리사들이 흔히 닭고기, 오리고기, 돼지고

기, 거위고기를 한 솥으로 끓인다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만약 동물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저 세상에 가서도 억울해하며 그 요리사가 지옥에 떨어지도록 벌을 내려달라고 하소연할 것이다.” “평범한 요리사의 곁에는 늘 돼지기를 한 통이 있어 매번 요리 하나를 끝내고 나면 기름 한 국자를 떠서 솥에 둘러 기름으로 떡칠을 한다.”

원매가 꿈꾸는 맛있는 요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맛의 균형인데 오늘날 대다수 저장 요리가 지켜온 원칙이기도 하다. 즉 “맛있는 음식은 식감이 풍부하고 향기가 가득하지만 느끼하지 않아야 하고, 신선하고 자연스럽지만 맛이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는 것이다.

저장 유명요리 5가지

龍井蝦仁 룽징샤런

룽징샤런은 청나라 건륭황제가 발명한 요리라고 한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이 여름철 요리는 갖따운 룽징차를 신선한 민물 새우와 볶은 까다로운 요리이다. 새하얗고 보드라운 새우살에 파르스름한 찻잎을 매치시킨 것으로 균침이 저절로 돌게 만든다.

西湖醋魚 시후추위

시후추위는 잉어의 산뜻한 향기와 향저우의 유명한 탕추(糖醋: 설탕에 식초를 더한 양념)의 맛이 어우러져 있다. 이 요리는 약간의 사오싱주와 생강가루, 간장, 식초와 설탕 등으로 맛을 내어 깊은 식감을 만들어 낸다.

叫花鷄 자오화지

일설에 의하면 고대의 향저우의 거지들은 연잎과 진흙으로 닭고기를 싸서 모닥불에 구워먹었다고 하는데, 이 요리는 오늘날 저장의 유명 요리로 변신

하였다. 자오화지는 연잎으로 싸 닭고기에 소흥주를 넣어 가미하고 보통 표고버섯 따위의 다른 맛있는 재료를 더 넣어 진흙으로 싸서 구워낸다.

金華火腿 진화 휘투이

저장 중부지역의 진화(金華)는 유명한 진화 휘투이를 생산한다. 전통적으로 매년 겨울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에 바닷소금으로 절여서 만든다. 또 하나의 대표 요리인 파이난(排南)의 요리법은 최고급 진화 휘투이를 작은 토막으로 자르면서 윗부분의 아주 얇은 지방 층은 한 겹 남겨둔다. 그리고 그 위

에 설탕과 소흥주로 만든 소스를 뿌린 후 찌서 익힌다.

糟燒竹筍 짜오사오주순

전형적인 야채 요리로, 향조(香糟)를 넣고 삶은 죽순으로 만든다. 향조란 미주(米酒)를 증류하는 과정에서 발효 뒤에 남은 향이 도는 술지게미이다. 요리사의 취향에 따라 다른 채소(또는 고기)를 첨가하기도 하고 또 죽순만 넣기도 하는데 보통 참기름으로 버무린다.



■ 룽징 (龍井) 의 전설

매년 봄, 3월 하순이면 항저우 서호(西湖) 지역의 신록으로 푸르른 산비탈이 분주해진다. 청명 전 2주일 안에 최상급 룽징차(龍井茶)를 제때 채취하려는 농민들의 밀집모자가 온 차밭을 뒤덮는다. 시후룽징(西湖龍井)은 “룽징차”라고도 하며, 중국에서 가장 좋은 녹차 중 하나이다. 푸른 연녹색에 참새 혀 모양의 잎, 쓴맛과 단맛이 잘 어우러진 맛과 진한 향기로 유명하다.

숙련된 일꾼이 하루종일 따서 가공한

차잎이 겨우 0.5kg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생산량이 적은 것도 룽징차가 비싼 이유 중의 하나이다.

충분한 강우와 습한 공기, 온화한 기후, 기름진 토양, 구릉지대 등의 모든 자연 조건이 이 지역을 차 재배에 최고 적합한 곳으로 만들었다. 이 곳의 차 재배 역사는 어언 1,500 년이나 되었다.

항저우시 쌍봉(雙峰) 촌에 소재한 중국차박물관의 쌍봉관센터는 차에 대한



지식을 쌓는 최상의 장소이다.

쌍봉촌은 이 지역의 주요 차 생산 마을 중 하나이며, 박물관은 차밭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을의 거의 모든 집이 차잎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데, 관광객들은 차 농장 뜰에서 연한 차잎을 솥에 더는 광경을 지켜볼 수 있다.

시후 서남쪽의 룽징(龍井)촌에 자리잡은 용정사에는 용정(龍井)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바로 룽징의 전설이 생겨난 곳이다. 전설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에도 이 우물만은 결코 마른 적이 없었다고 한

다. 그 안에 용이 살기 때문이라고 믿게 된 현지인들은 이 우물을 '룽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룽징촌에서는 시후룽징의 모든 품종 가운데서 최상급인 스펡룽징을 맛볼 수 있다. 만약 우수한 품질의 룽징차를 원한다면 발품을 팔아 현지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메이지아우(梅家坞)촌과 룽징촌 같은 대규모 차 생산지에서는 농장에 들러 로스팅하는 과정도 구경하면서 갓 따온 룽징차를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55가지 저장 명차

大佛龍井 대불룡정

대불룡정은 저장성 동남쪽의 신창현에서 재배된다. 고산지대의 자옥한 안개를 머금고 자란 명차로, 오랫동안 입안에서 감도는 난초향이 특징이다.

开化龍頂 카이화룽딩

카이화룽딩(開化龍頂)은 저장성 서북쪽의 카이화현에서 재배된다. 우려내면 연푸른색 차잎이 잔 속에서 위로 곤두서는 모습에서 ‘차잔 속의 숲’이라

는 별칭이 붙었다.

惠明茶 웨이밍차

웨이밍차는 저장성 서남쪽의 징닝서족자치현(景宁畚族自治县)의 특산물로, 1915년에 개최한 만국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서족인들은 9세기부터 그곳에서 차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安吉白茶 안지백차

백차는 녹차와는 달리 닦지 않고 햇볕에 말리거나

기계로 건조하는 등 최소한의 공정으로 가공된다. 안지현(安吉縣)의 백차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녹차의 쓴 맛이 나지 않는다.

松陽銀猴 송양인허우

저장성 서남쪽의 송양현(松陽縣)에서 재배된다. 가공하게 되면 차잎이 원숭이의 발처럼 돌돌 말리고 은백색을 띠므로 인허우(銀猴)라는 이름이 붙었다. 녹차와 백차 등 두 가지가 있다.

■ 저장의 전통극—월극 (越劇)

청나라 말기에 저장성 성현(盛縣)의 농민들은 현지 방언으로 대사와 노래를 결합한 ‘소가반(小歌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 장르를 만들었다. 농민들은 특이한 사건과 오래된 전설을 소재로 공연하였다.

20세기 초 상하이(上海)로 전파된 소가반은 처음엔 배우들이 농촌에서 왔다는 이유로 현지 기성 연극계의 비웃음을 샀다. 월극이 바로 이 소가반에서 탄생한 것이다. 월극은 소가반의 결점을 다듬고 보완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다른 희곡의 전통을 흡수하여 무대 셋팅과 복장 및 음악 등의 전체적 조화에 더욱 공을 들였다.

동시에 보완된 예술 형식에도 여성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더 추가하였다. 상하이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표현하는 로맨틱한 스토리와 부드러운 멜로디가 수많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월극은 여성이 주도하는 예술 장르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월극 속의 남자 배역도 흔히 여배우가 맡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

월극 배우들과 친구로 지내며 멋진 의상을 사주는 것이 한 때 상하이 상류층 여성들의 유행이었다. 중국 각지의 예술가들도 월극의 극본 창작에 나섰다. 그 중에서 《양축(梁祝)》, 《서상기(西廂記)》, 《도화선(桃花扇)》 등이 가장 유명하다.

《梁祝》

《양축》: 양산백과 축영대

《양축》은 사랑과 공부에 대한 이야기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민간 전설 중의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이미 1700년 가까이 전해내려 왔으며 수많은 영화, 연극, 가극, 심지어 협주곡까지 생겨났다. 저장에서 탄생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1930년대에 월극이 창작되었으며 이 이야기의 가장 유명한 버전은 1953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는 부잣집 딸 축영대(祝英臺)가 유명한 학부에 입학한데부터 시작되는데, 이 학부는 바로 명(明)나라 때부터 소문난 항저우 동남쪽에 있는 만송서원(萬松書院)이다.

남자들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축영대는 남장을 하게 되었고 양산백(梁山伯)이라는 학생을 만나게 된다. 금세 친구가 된 두 사람은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축영대는 양산백을 짝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축영대가 갑자기 집으로 불러지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축영대의 집을 찾아가던 양산백은 그녀가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져 영원히 변치 말자고 굳은 맹세를 하였다. 그러나 축영대는 오래지 않아 자신이 부잣집 바람둥이에게 시집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양산백은 온 마음이



무너지고 건강도 점점 나빠져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만다.

축영대의 혼례식 날, 혼례 행렬이 양산백의 묘지를 지나갈 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축영대가 가마에서 내려 애도를 표하자 바로 이때에 땅이 갈라지면서 축영대가 양산백의 무덤 속으로 뚫고 들어가게 되었고, 잠시 후 나비 두 마리가 밖으로 나와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서 다시는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西廂記》

《서상기》

원극 작가 왕실보(王實甫)가 지은 이 애정 희극은 비밀 결혼을 묘사했다는 이유로 청나라 조정의 사회 도덕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에게 의해 금지되었다. 이 작품은 연인 장생(張生)과 최앵앵(崔鶯鶯)

의 러브스토리를 기술하였다. 이 둘은 시(詩)를 통해 서로 사랑을 표현하며 앵앵 어머니의 간섭과 비적(匪賊)의 위협을 뚫고 결국에는 결혼에 이른다는 이야기이다.

《桃花扇》

《도화선》

청나라 작가 공상임(孔尚任)이 쓴 러브스토리로 젊은 지식인 후방역(侯方域)과 기녀 이향군(李香君)의 비극적인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쇠락한 명나라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사랑의 징표로 서로 부채를 교환했지만 결국 후방역은 강압에 의해 혼란스럽고 부패한 조정을 떠나게 되고 이향군은 사악한 관리에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것을 강요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소극과 무극

저장성의 3대희극 가운데 하나인 소극(紹劇)은 월극(越劇)·무극(婺劇)과 마찬가지로 이미 30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레퍼토리는 무려 400편에 달한다. 소극은 강렬한 음악과 동작 그리고 줄거리로 유명하다. 유명한 소극 레퍼토리로는 1962년에 영화로 제작된 《순오공삼타백골정(孫悟空三打白骨精)》

백골요괴를 세 차례 때려잡다》와 《龍虎鬪(용호상박, 교룡인 송태조 조광윤과 맹호인 호연찬의 결투를 그린 이야기)》 등이 있다.

저장성 3대 희극 가운데 하나인 무극(婺戲)은 금화희(金華戲)라고도 하는데, 시골무대 공연에서 비롯되었다. 배우의 기초 화장은 경극 화장에 비

해 황색조를 띠며 곡예 솜씨도 훌륭하다. 무극의 유명 레퍼토리인 《단교(斷橋)》는 《백사전(白蛇傳, 백사 허소정과 선비 허선의 러브스 토리)》을 저본으로 한 것인데, 공연에서 ‘뱀이 물을 가르듯이 S자로 이동하는’ 배우의 절기가 그야말로 생동감을 자아낸다.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游学浙江: 朝鲜文 / 《汉语世界》编辑部编著;
朴春燮译. -- 北京: 商务印书馆国际有限公司, 2021.1
(“游学浙江”多语种系列)
ISBN 978-7-5176-0814-1

I. ①游… II. ①汉… ②朴… III. ①浙江—概况—
朝鲜语 IV. ① K925.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20) 第 270073 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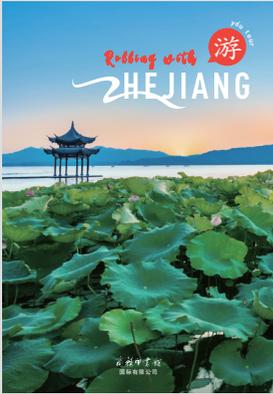
저장(浙江)연수여행 游学浙江

编 著 《汉语世界》编辑部
翻 译 朴春燮
出版发行 商务印书馆国际有限公司
地 址 北京市朝阳区吉庆里 14 号楼
佳汇国际中心 A 座 12 层
邮 编 100020
电 话 010-65592876 (编校部)
010-65598498 (市场营销部)
网 址 www.cpi1993.com
印 刷 鑫艺佳利(天津)印刷有限公司
开 本 880mm × 1230mm 1/32
字 数 50 千字
印 张 1.625
版 次 2021 年 1 月第 1 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176-0814-1
定 价 15.00 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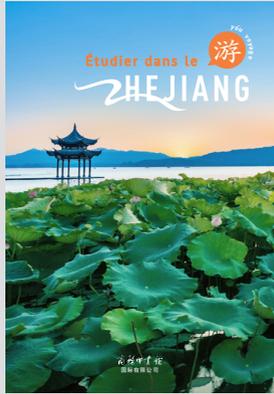
版权所有·违者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我公司联系调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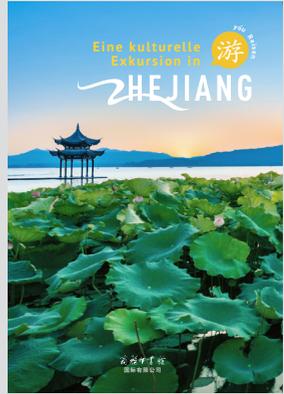
저장(浙江) 연수여행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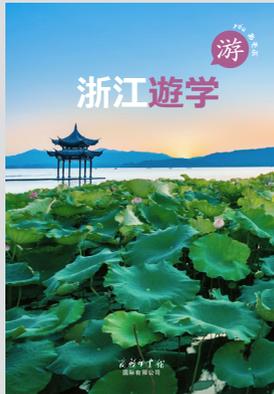
프랑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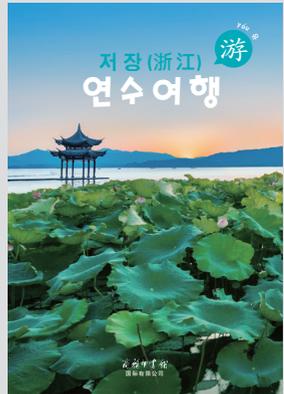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풍경이 그림 같은 저장 (浙江)은 고전 수묵화의 영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컨베이어를 육성시켰다. 저장, 이 도시의 이름은 영원한 것이다. 중국에서 최고의 다양성과 경제활력을 갖춘 지역 중 하나로서, 그 누구든 방문, 비즈니스, 유학하기에 딱 적합한 첫 역이다. 이 책자는 저장의 유명한 항저우 서호에서부터 우

쨌 (烏鎮), 운하 옆 오래된 현성이 5G 기술의 세계적 리더로 탈바꿈하는 과정 등을 통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저장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했다. 실용적인 언어 학습 내용, 의미 깊은 성어와 역사 지식은 이 책자를 더욱 더 완벽하게 했으며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저장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